

인 사 말 씀

푸르른 신록 속에서 깃들은 살며시 향기로운 우주의 문을 열고 지저귀는 새들은 생명의 신비를 노래하는 봄입니다.

그간 건강은 잘 보존하고 지내셨습니까?

이번 4월달 총회도 코로나로 인하여 부득이 총회를 개최 못하게 되었습니다.

시국이 정상화 되면 이번 봄부터는 서울 종회임원, 금병재 임원들과 전국 문중방문을 하고 저 합니다. 전국 일가 종원님의 따뜻한 고견을 듣고 저 합니다.

부족한 저를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 우리 석성공파 문중이 이러하게 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간 큰 열정과 물심양면으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김종겸 종회장님과 고문단, 회장단, 이사님과 종원 여러분에게 큰 박수를 보냅니다. 늘 항상 그러했듯이 우리 문중은 단합된 힘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. 앞으로 우리 종친 간에 좋은 관계가 유지되는 종친회가 되어 신뢰와 명예를 높이는 문중이 되기를 기원합니다.

종원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.

2021. 3. 30.

종 손 김 병 철 배상